

SRI

정책리포트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수원시 경제손실 추정 및 정책대응

조용준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naya@suwon.re.kr

요 약

- 정부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이하 CV) 발병 초기에 국가 방역시스템을 조기 가동하여 질병 확산을 막음
- 전문가들은 정부의 선제대응 덕분에 3개월보다 이른 시기에 CV조기 종료 가능성 예측
- CV가 1개월 동안 지속될 경우 부가가치 생산액 감소로 인한 수원시의 경제 피해규모는 **약 933억 원**으로 나타남
- **2개월이 지속되면 2,474억 원, 3개월이 지속되면 4,015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
- CV와는 상관없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수원시의 법인세 세수 확보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제 안

- 중앙정부 및 경기도 차원의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정책을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안내 필요
- 공공기관 구내식당 이용 자제
- 지역화폐의 인센티브를 현행 6%에서 10~15%로 상향조정하여 관내 소상공인 운영업소의 활성화 장려 필요
- 대형 음식점, 사우나 등 공공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수원시의 철저한 방역 및 내용에 대한 홍보 강화

Keyword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수원시 경제손실 규모, 정책제안

수원시정연구원 현안수시보고서는 수원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수원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수원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 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I. 한국경제 영향

1 현황

- 2020년 1월 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이하 CV)가 발생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음
- CV의 발원지인 중국은 최대명절인 춘절 연휴를 연기하면서 자국 내의 감염확산을 막으려고 노력
- CV 확산이 중국 내에 집중될 경우 2020년 1-4월 외국인 관광객은 61.6만 명, 관광 수입은 0.9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중국 춘절 연휴의 연장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음
 -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중국산 부품 공장이 가동을 멈춤
 - 국내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
- 수출 주력 국가인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인데 중국의 CV확산으로 최종 소비 및 GDP가 감소하여 수출량 감소 예상
- CV의 전염 및 확산에 대한 우려로 인해 국내 서비스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

2 향후 전망

- 과거 사스(SARS, 2003.2-6월)의 치사율은 9.6%였으나 국내 감염자는 4명, 사망자는 없었음
 - 코스피 조정 폭은 -9.2%, 원/달러환율은 5.5% 증가(\$당 1,192원→1,258원)를 기록
 - 사스의 피해가 컸던 홍콩의 경제성장률은 -0.6%(2003년 2분기)에서 4.0%(3분기), 4.7%(4분기)로 점진적 회복

- 비교적 최근의 호흡기 감염 질환인 메르스(MERS, 2015.5-9월)의 치사율은 34.5%
 - 국내에서는 186명이 감염되고 39명이 사망하여 국내 치사율은 21%를 기록
 - 코스피 조정 폭은 -11.2%, 원/달러환율은 10.9% 증가(\$당 1,077원→1,195원)를 기록
 - 2015년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4.0%였으나 4분기에는 1.9%까지 하락
 - 메르스가 한국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이 매우 컸음. 호흡기 감염질환이 국내 경제상황에 미치는 영향의 주요요인은 기간이 아니라 치사율로 정해짐
- 사스와 메르스 모두 동일한 기간(5개월)이었지만 국내의 치사율이 달랐기 때문에 경제회복 속도가 다르게 나타남
 - 치사율이 낮았던 사스는 전염병 이후 빠른 경제회복세를 보였으나, 치사율이 높았던 메르스는 전염병 종식 이후에도 국내 경제 불황에 큰 영향을 미침
- 현재 CV의 치사율은 약3%를 나타냄
 - 정부가 CV 발병 초기에 국가 방역시스템을 조기 가동하여 질병 확산을 막음
→ 다수의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으로 볼 때, CV지속기간을 3개월 정도로 예측
 - 정부의 선제대응 덕분에 3개월보다 이른 시기에 조기 종료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음

II. 경제손실 추정

1 추정의 목적

- CV로 인한 수원시의 경제적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현재로서는 예단할 수 없음
- CV로 인한 수원시의 경제적 손실을 추정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CV로 인한 더 큰 피해를 방지하고 수원시민들의 안정적인 경제생활 도모

2 추정 개요

- CV 등 전염성 질병의 피해 규모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방법이 존재
 - 어떤 방법이 최선인가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직관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결정
 - 예를 들어 CV로 인한 휴교와 휴원에 대한 대체 투입 노동력 손실에 대해 추정할 수 있음
- 모든 상점에 대한 피해를 전수조사하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장부 대조를 통한 실질적인 피해를 도출하는 조사방법도 있음
 - 이럴 경우 국세청 등의 협조를 얻어 정확한 분석이 필요
 - 하지만 이런 분석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려면 시의성이 결여되고 엄청난 조사 비용이 소모되므로 효율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 없음
 - 그러므로 대부분의 피해 추정 분석에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음
- 본고는 한국은행에서 생산하는 투입산출분석(Input-Output Table, 이하 I-O)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
 - 하지만 I-O는 광역지자체의 단위까지만 제공되므로 수원시와 같은 기초지자체의 I-O는 존재하지 않음
- 그렇다고 해서 기초지자체가 I-O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님
 - 광역자치단체의 I-O를 이용해서 기초지자체에 의미 있는 결과 적용 가능
 - 수원시의 경우, 이미 산출된 경기도의 I-O를 활용할 수 있음
 - 분석대상인 개별 산업의 경기도 부가가치생산액을 수원시의 비율만큼 전환하면 분석 가능
 - 물론 I-O가 승수효과에 기반을 둔만큼 부분적 오차발생의 여지는 있음

3 추정 방법

- 2015년 메르스(MERS) 발병 당시 경기연구원에서 추정한 경기도 피해규모를 기준으로 설정
 - CV는 발생지역, 잠복기, 치사율 면에서 메르스와 다름. 하지만 가장 최근에 발생한 호흡기 관련 질병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
 - CV에 대한 국민적 공포는 메르스 당시보다 오히려 적지 않음
 - 그러므로 메르스의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CV로 인한 수원시의 경제적 피해 규모 추정이 무리는 아니라고 판단
- 추정방법을 토대로 CV가 수원시 경제에 미치는 피해규모 도출의 모형은 아래와 같음

[그림 1] 수원시 경제 피해규모 추정 모형

$$\hat{D}_S = \hat{d}_{MERS-K} \times \frac{P_S}{P_K} \sum_{k=1}^i I_k \quad \text{식(1)}$$

(\hat{D}_S : 수원시 경제 손실 추정치, \hat{d}_{MERS-K} : 메르스의 경기도 경제 손실 추정치,
 P_S : 경기도에서 수원시 산업 규모, P_K : 경기도 전체 산업 규모,
 I_k : 개별 산업의 부가가치 생산액)

4 추정 결과

- CV의 지속기간을 1, 2, 3개월로 나누어 산업별 피해규모 시나리오는 아래의 <표 1>과 같음
- 서비스업의 피해규모가 가장 크고 건설업의 피해규모가 가장 작음
- CV가 1개월 동안 지속될 경우 부가가치 생산액 감소로 인한 수원시의 경제 피해규모는 약 933억 원으로 나타남
- 2개월이 지속되면 2,474억 원, 3개월이 지속되면 4,015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

[표 1] 수원시 산업별 부가가치 생산액 감소 추정치

(단위 : 백만원)

업종 \ 기 간	1개월	2개월	3개월
건설업	88	229	37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49	891	1,434
제조업	784	1,969	3,154
서비스업	92,143	244,377	396,612
전 체	93,364	247,466	401,571

자료) 경기 통계 홈페이지(<http://stat.gg.go.kr>) 데이터 가공

5 삼성전자의 법인세 영향

- 삼성전자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와 상관없이 2020년에 3개 사업부문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바일(IM)]에서 모두 높은 두 자릿수의 성장률 기대
 - 가전(CE)에서는 YoY(Year on Year,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가 동일할 것으로 예측
- 2020년 삼성전자는 특히 디스플레이 사업부의 약진을 기대하고 있음
- CV와는 상관없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수원시의 법인세 세수 확보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표 2] 2020년 삼성전자 사업 부문 영업 이익 예측

(단위 : 증감율 %)

구 분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CE)	모바일(IM)	평 가
2017년	159.0	142.1	-37.7	9.6	반도체 주도로 가전 제외 3개 사업부 높은 이익증가율 기록
2018년	26.6	-51.5	23.2	-14.2	
2019년	-69.5	-36.0	28.7	-11.3	
2020년(E) 증감율	47.0	80.5	0.0	16.4	가전 제외 3개 사업부 높은 이익증가율 기록 예상
2020년(E) 비중	55.4	8.4	7.2	29.1	

자료) 하나금융투자(2020)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삼성전자의 법인세 납부액이 감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III. 수원시 정책 대응 방안

1 쌍대성 이론

- 경제학의 모든 상황에는 쌍대성(duality) 원리가 존재
 - 환율이 오르는 것 혹은 내리는 것,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 국내 경제 측면에서 반드시 좋고 안 좋은 부분은 상존함
 - 하지만 언론에서는 환율이 하락하면 그 그늘, 상승하면 그 그늘만을 조명하여 국민들의 불안 심리 자극
- CV가 수원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마찬가지로
- 이번 사태로 인해 다중이 군집하는 대형식당들은 큰 타격을 입음
 - 반면, 대형 군집장소여도 스타벅스와 같은 인기 커피숍들은 매출 감소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음
- 배달음식 전문점, 배달서비스업, 마스크 관련 산업 등은 호황을 누리고 있음
- 그러므로 수원시 산업 전반에 미치는 불황과 호황을 따져보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음
 - 하지만 영업 타격을 호소하는 상인들을 위한 수원시의 행정 액션은 필요
 - 중앙정부 및 경기도 차원의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정책을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안내 필요

2 공공기관 구내식당 이용 자제

- 현재 수원시 각 구청에는 구내식당이 존재하지 않지만 시청, 더함파크 등은 직영 구내식당이 있음
 - 직영이므로 식당 이용에 대한 구성원들의 만족도 역시 매우 높음

- CV로 사태가 잠잠해질 때까지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로자들에게 일시적으로 구내 식당 이용을 자제하고 지역 상권 이용 권고
 - 점심식사 시 주1회 인근 상권 이용 권장
 - 특히, 저녁 식사는 의무적으로 인근 상권 이용 적극 권장 필요

3 지역화폐 활용

- 수원시 지역화폐인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현행 6%에서 10~15%로 특별 상향 조정필요
 - 이를 통해 관내 소상공인 운영 업소의 활성화 장려 필요

4 다중 이용시설 방역 강화 홍보

- 대형 음식점, 사우나 등 공공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수원시의 철저한 방역내용에 대한 홍보 강화
 - 수원시는 시민 안전을 위한 방역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확고한 방침 천명
 - 방역 강화로 인해 수원시의 다중 이용시설은 안전하다는 인식 설파 필요

5 수원시 피해신고센터 설치

- CV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수원시의 인적 피해는 크지 않음
 - 다만, CV 발생으로 인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는 매우 클 것으로 판단
- 수원시에 'CV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적극적 행정 구현 필요
 -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공감하고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중앙정부의 세제 혜택과 직접적으로 연결해주는 시스템 구축
- 중앙정부는 CV 확진자 및 격리자 등의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에 대해 각종 세제혜택 지원내용 발표

- 메르스 사태 때에도 동일한 중앙정부의 지원내용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혜택을 입은 소상공인은 많지 않음
 - 혜택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 방식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소수만 지원 받음
-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² 사항 외에 수원시의 추가지원 사항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홍보
 - 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지원제도의 내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플랫폼 행정’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별첨] 중앙정부 정책금융 신규 지원 내용

지원기관	프로그램명	지원대상	지원한도(억원)
산 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안정지원자금 - 기업당 최대 중소기업 50억원, 중견 70억원, 금리감면 無 	중소·중견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DB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 - 기업당 최대 중소기업 50억원, 중견 70억원, 최대 1.0%p 금리감면 	중소·중견	1,000
기 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지원자금 - 기업당 최대 5억원, 최대 1.0%p 금리감면 	중소· 소상공인	1,000
수 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선 다변화 대출 - 최대 중소기업 0.5%p, 중견 0.3%p 금리감면 	중소·중견	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운영자금 지원 - 최대 중소기업 0.5%p, 중견 0.3%p 금리감면 	중소·중견	5,000
중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기업당 최대 10억원 	중소	250
소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기업당 최대 0.7억원 	소상공인	200
신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대보증 프로그램 - 보증비율 상향(85% → 90%), 보증료를 최대 0.2%p 차감, 심사절차 간소화 	중소· 소상공인	3,000
기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례보증 프로그램 - 기업당 최대 3억원 : 보증비율 상향(85% → 95%), 보증료를 1.0% 고정 	중소· 소상공인	1,050
지역신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례보증 프로그램 - 기업당 최대 0.7억원 : 보증비율 상향(85% → 100%), 보증료를 0.8% 고정 	소상공인	1,000
계			19,500

자료) 관계부처 합동

| 참고문헌 |

〈국문 자료〉

2017 시군단위 GRDP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KOSIS

2월 주식시장 전망과 전략, 하나금융그룹, 2020. 2.3

김군수(2015), 메르스 확산에 따른 경기도 경제적 손실 추정, 경기연구원

조경엽(2015), 메르스 사태의 경제적 손실 추정, KERI Insight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영향 점검, 삼성증권, 2020.1.28.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고용노동부 브리핑, 2020.2.10.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따른 영향, 유진투자증권, 2020.1.28.



발행인 | 최병대

발행처 |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031.220.8001

www.suwon.re.kr

※ 이 정책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수원시의 정책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